



국립치의학연구원 법안 반드시 관철” 국회의원들 올해안 설립에 ‘한목소리’ 치협·이용섭 의원 공동 정책토론회

“올해 안에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국치의학연구원의 설립을 촉구하는 치과계의 절절한 목소리가 국회에서 울려 퍼진 가운데 국회의원들도 연구원 설립에 힘을 보탰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과 치협이 공동으로 주최한 ‘한국치의학연구원 설립 당위성과 역할 및 비전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7월 12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렸다. 비가 오는 악조건의 날씨 속에서도 300여명의 인파가 몰려 연구원 설립을 위한 뜨거운 열기를 보여줬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용섭, 김상희,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토론회에서는 연구원이 반드시 설립돼야 한다는 치과계의 외침에 더해 국회의원들도 법안 통과에 대한 의지를 피력함으로써 연구원 설립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이용섭 의원은 “한국치의학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금만 뒷받침해주면 기초분야 강화를 통한 원천기술 개발로 치의학 분야가 큰 효과 노릇을 할 것”이라며 “법안 발의자로서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발언했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한의학연구원도 있는 것 같은데 치의학

연구원이 없나? 치과만은 제 아무리 건강해도 죽기 전에 꼭 거쳐 가야 하는 곳이다. 고령화시대에 치의학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연구원은 필수적”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때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법안 취지를 살려 법안이 잘 성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승희 의원은 연구원 설립 법안이 다뤄지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민주당 간사다.

지자체에서도 연구원 설립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표현했다.

오형국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연구원 설립 법안이 통과돼 국내 치과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연구원이 설립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내외빈으로는 김상희·유승희 민주당 의원, 오형국 광주시 행정부시장, 이수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총재, 조찬휘 약사회장, 성명숙 간협회장, 강순심 간호조무사협회장, 김한술 한국치과기재산업협회장, 김동기 구강보건협회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세영 협회장은 “전국에서 연구원 설립에 관심 있는 분들이 참석해주셨다. 이 열기를 그대로 밀고 나가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체계적인 치과 의료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연구원은 반드시 설립돼야 한다. 이 자리가 한국치과의료산업의 육성과 치의학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데 좋은 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남 하나뿐인 장애인 전문치과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폐쇄 위기 치협정책연구소 ‘ISSUE REPORT 제2호’ 발행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소(소장 노홍섭·이하 정책연구소)가 ‘진주의료원 폐업과 공공치과의료’를 주제로 한 ‘ISSUE REPORT 제2호’를 7월 22일자로 발행했다.

이번 ‘ISSUE REPORT 제2호’에서는 장애인의 구강건강 현황과 장애인 치과의료 이용실태, 한국의 장애인 치과의료기관의 현황 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았다.

특히, 최근 공공의료기관의 뜨거운 감자로 이슈가 됐던 진주의료원의 폐업 결정과 관련해 진주의료원 폐업이 장애인 치과의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또, 진주의료원 장애인 전문 치과의 설치배경과 경과, 현황 등을 담고 진주의료원 폐업 전까지의 경상남도 장애인 전문 치과 확대 계획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진주의료원은 경상남도민들의 건강권을 위해 운영돼 온 공공의료기관 중 한 곳으로 최근 만성적자를 이유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지난 1일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를 공포한 바 있다.

최용찬 정책연구소 연구원은 “진주의료원 장애인 전문 치과의 폐쇄는 경남지역에 하나밖에 없던 장애인 전문 치과가 없어진다는 점에서 큰 문제다. 하루 빨리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5개소로 확대하기로 계획했던 장애인 전문 치과 모두가 진주의료원의 폐쇄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우려를 표했다.

‘ISSUE REPORT’는 치과의료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현안 쟁점들을 그 배경과 경과, 논쟁점들을 중심으로 정리한 소식지로, 치협 회원이라면 누구나 신청해 받아볼 수 있고 치과의료정책연구소 홈페이지(www.ridp.or.kr)를 통해 다운이 가능하다.



임플란트 급여화 대처 '뺏 올렸다' 진흥원과 연구용역 체결 주요쟁점 의견 나눠 급여대책 TF 2차 회의

내년에 실시될 예정인 노인 임플란트 급여화와 관련한 대처방안 연구가 본격 진행된다.

치협은 7월 11일 협회 회관 대회의실에서 '임플란트 급여대책 자문 TF(위원장 마경화 상근보험부회장) 2차 회의를 열고 정부가 추진하는 노인 임플란트 급여화 시행방침에 따른 적정 원가 산출 등 건보적용 주요 쟁점사항들에 대한 연구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치협은 최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과 연구용역을 체결하고 '노인 임플란트 급여화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이날 TF에서는 진흥원 연구진들이 참석해 연구내용 및 방법, 연구추진 일정 등을 설명한데 이어 연구방향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이번 연구를 통해 임플란트 행위 분류 및 임플란트 원가 조사 등을 거쳐 임플란트 적정수가 수준을 산정하고, 이어 급여범위와 대상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추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합리적인 급여기준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치협은 이번 연구와 관련해 기초자료 조사를 위해 전국 치과의원을 대상으로 일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가 진행중

이다.

한편 정부도 내년에 시행 예정인 노인 임플란트 급여적용을 위한 보험수가 개발을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로 최근 임플란트 행위분류(안) 검토를 위해 관련 학회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인 임플란트 급여화는 지난 2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박근혜 정부가 5년간 추진할 5대 국정목표와 21개 국정전략, 140개 국정과제를 밝히면서 오는 2014년부터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급여화를 시행하는 한편 오는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연령층을 확대 적용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마경화 상근보험부회장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연령층을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 외에 아직까지 임플란트 급여적용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아 행위분류, 적용 대상 및 범위 등 수요를 예측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이에 이번 연구를 통해 급여화와 관련한 각종 쟁점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해 합리적인 급여기준이 정립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치협도 공공치의 지속 지원" 김 협회장, 공공구강보건사업협력과정 교육 강연

"여러분의 뒤에는 항상 치협이 있습니다. 언제나 국민구강보건에 대한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진료에 열중해 주십시오."

김세영 협회장은 7월 11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서울사회복무교육센터에서 진행된 '2013년 (통합)치과의사 공공구강보건사업협력과정' 교육의 연자로 나서 이 같이 당부했다.

김 협회장은 이날 강연에서 국내 공공치과의료기관의 현황과 당면과제 등을 강의하고 이에 대한 치협의 적극적인 지원계획을 밝혔다.

김 협회장은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치과의사들의 근무환경

개선 및 고용안정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며 "한편에서는 치과치료의 영리화를 추진하는데 골몰해 있는 세력이 있는데 반해 여러분과 같은 동료들이 있어 큰 위안을 받는다. 공공치과의료기관 지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공치의학회(회장 오동찬)가 공공기관 치과의사들의 효율적인 필수 직무교육 이수를 위해 마련한 것으로 40여명의 공공기관 근무 치과의사들이 참석했으며, 강사로는 김 협회장과 최재갑 경북대 치전문 교수, 김백일 연세치대 교수 등이 초빙됐다.